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24. 1. 4(목) 17:00~20:0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 석 자 (13명)	권하은(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도재형(기획처장), 박서림(학부 총학생회장), 박예림(사범대학 공동대표), 박지혜(간호대학 공동대표), 반지민(학부 부총학생회장), 백은미(학생처장), 왕혜정(관리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명휘(교무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전현주(대학원학생회장), 정덕유(총무처장)		
불 참 자 (0명)			
안 건	1) 학부 등록금 책정(안) 2)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3)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4)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내 용	■ 개회 - 위원장이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위원장이 회의록 작성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2차 회의는 학생위원 측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회차로 홈페이지 게시 일정을 감안하여 1월 8일 월요일 오전까지 회의록 초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하다. - 위원장이 총 재적위원 13명의 위원 중 13명으로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회하다. ■ 회의내용 I.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1. 학부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2.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3.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4.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안) 보고 전 1차 등심위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을지 질의하고, 예산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다. -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보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학부 정규 등록금, 학부 계절학기, 학점등록금을 동결하여 책정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입학금실비용 189,000원을 등록금에 산입됨을 설명하다. 대학원 등록금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정규등록금과 그에 연동되는 교과목등록금에 한하여 4% 인상(안)을 설명하고, 2024학년도부터 학부 및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정규등록금과 학점/교과목등록금에 한하여 8% 인상 책정되었음을 설명하다. 학부 공과대학 편제 조정으로 인한 관련 학과 등록금은 기존 등록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하고, 일반대학원 영상예술협동과정은 일반대학원 예능계열 등록금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 설명하다. 이에 이어서, 참고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인상 책정 과정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작일 진행된 1차 등심위에서 논의된 학생위원 요청 시 12월 등심위 개최 방안, 2월 중 관련 부처와 학생 요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12월로 개최를 앞당기는 것은 4월 결산에서 논의 가능함을 전하고, 이 외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장이 언급한 내용에 동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추가 개최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일정상의 이유, 신입생 등록금 납부 일자의 영향인지 확인하고, 등록금 동결을 가정하여 등록금 납부 및 예산 편성 절차 진행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지 확인차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이에 맞는 부분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 및 구조 관련 논의가 추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2020년 등심위 사례를 언급하며, 타 대학 등심위 현황과 비교하여 학생 요구안을 논의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1~2차례의 등심위만으로 등록금을 책정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하다. 덧붙여 2월 중 협의체를 통한 학교 관련 부처와의 학생 요구안 논의 자리와 12월 등심위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을 요구하다. - 기획처장이 타 대학 현황에 대해 알고 있음에 본교에서도 적용하면
--	--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12월과 1월 학생회 집행부가 달라 현실적으로 12월 개최에 대한 우려 지점이 있다고 설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등심위 진행에 학생위원들이 의견이 수렴된다면, 이를 4월 결산 때 논의하여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답하고, 2월에 학생처 중심 협의체 형성 후 관련 부처에서 참여하여 학생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0년 12월 진행된 대학평의원회에 차기 대표자가 함께 참석한 사례를 언급하며, 12월 등심위 진행 시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기 대표자가 해당 회의에 참관인의 형식으로 참석하는 안을 제시하고, 기획처장이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4월 등심위에서 논의할 것을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준비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자료를 토대로 본교가 타교 대비 등록금 기준 장학금 비율이 낮은 편임을 전하고, 학생처장이 2023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서울 주요 사립대학 기준 본교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이 교내/외 모두 상위권에 해당하나 교외장학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답하며, 대학원 학생위원의 자료의 출처 및 기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다.

- 이에, 대학원 학생회장이 '전국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대학알리미를 기준으로 재구성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자료임을 답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입장에서는 등록금 대비 수혜 받는 장학금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조사한 자료임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 분석 시 비교 대상에 대해서 지역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정보공시의 서울 주요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재학생 1인당 장학금도 높지만 평균등록금 대비 장학금 역시 상위권임을 설명하다.

- 덧붙여 위원장이 자료의 표본추출과 근거 자료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음을 부연 설명하고, 학생처장이 대학원 학생회장이 조사한 자료에는 국공립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로 보여져 비교가 어려우며 서울 주요 사립대학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원 학생회장의 자료와 대학정보공시 자료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위원장이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단락하고, 다른 질의를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이미 본교 대학원 평균등록금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됨을 언급하며 본교 대학원 등록금이 낮은 수준이 아니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학생들은 높은 학비 대비 수업의 질, 복지 혜택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다.

- 예산팀장이 1차 회의에서 언급된 등록금에 대한 현황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에 대해 타교와 비교 시 그 동안 동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설명한 부분이며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연구 중심 대학을 목표로 투자 재원 마련과 동시에 물가 인상 반영의 결과임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타 대학의 등록금 동결 현황을 언급하며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재학생의 부담을 전하고 1년 간 등록금 동결을 유지 할 수 없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이에 재정 측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상은 불가피함을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1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지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언론에 언급된 국내 최고 대학, 국내 최고 사립대학으로의 상징성을 지닌 두 학교의 등록금 동결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최초의 여대로서 큰 상징성을 가진 본교에서도 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다. 불가피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하여 1년 뒤 등록금 인상 예고한 타 대학의 사례를 통해 본교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통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타 대학과 비교할 것이 아닌, 우리가 타 대학의 올바른 모범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 기획처장이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예고 사례와 관련하여,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 공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2023년 4월 등심위에서 결산(안) 심의 시 학생위원들도 기금 손실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여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음을 답하다.

- 이에,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 부담을 제기했을 때 재정적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인상된 등록금 책정(안)을 납득할 수 있는 시설, 복지, 환경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지적하다.

- 예산팀장이 1차 회의에서 공유한 것처럼 교내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평가를 통해 성과를 인정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연구 활동을 통한 교외과제 수주를 상승으로 2023학년도 산학전입금이 증가했으며, 부속병원에서도 서울병원 신축 이후 어려운 상황에도 2024학년도부터 학교로의 전출금 증액 결정하고, 법인에서는 법적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을 사례로 언급하고 등록금 동결을 유지한 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 이

후 고물가시대에 접어들며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고정적 비용 급증으로 기본적인 운영만으로도 재정적 한계 상황임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제시된 자료에 물가상승률, 타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만 있을 뿐 인상된 등록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학원생의 등록금액에 비해 시설/복지가 미흡함을 지적하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등록금까지 인상된다면 대학원생이 체감하는 부담은 2배 이상임을 호소하며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

- 예산팀장이 냉난방, 승강기에 관련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일시에 해결하긴 어렵지만 재원 마련의 일정을 계획하고 시급성에 따라 연구,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하고, 기획처장이 생활환경관 재건축을 통해 약학대학 구성원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종합과학관의 온수, 난방 시설 문제 및 특수대학원생들의 야간 수업 진행 시 ECC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한 정규수업 이후 수업 연장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등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 현재 등록금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되며, 이런 상황에서의 등록금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하다.

- 관리처장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설 환경에 대한 불편을 일시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점에 이해를 구하고, 오래된 건물들의 경우 내진 설계를 다시 하여 장기적으로 재건축 등의 큰 사업 계획을 통해 시설 보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임에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부분임을 설명하다. 온수 문제의 경우 행정실을 통해 불편사항을 전달하면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 즉시 처리할 예정임을 답하다.

- 위원장이 이에 덧붙여, 시설 보완은 노력하고 있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근본적 제약이 있음을 부연 설명하고, 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습편의를 고려하여 ECC 야간 수업 시 강의실 개방 시간 연장에 대해서 재고할 것임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연구 중심 학교를 만드는 주체가 본교 대학원생들임을 강조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본교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누수, 난방 등 기본적인 상황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중심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이 맞는지 지적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올해 국책 연구비가 크게 삭감되면서 상황에 따라 인건비가 삭감된 경우도 많음을 지적하며 대학원생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다. 연구 중심 학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들의 연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 등록금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학생들의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연구의 질을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하여 올해만이라도 등록금을 동결할 수 없는 부분인지 제의하다.

- 예산팀장이 국책 연구비가 줄어들더라도 연구원 인건비는 국가연구 과제 관련된 단가 기준표를 준용하여 책정되므로 경력이나 산정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임의로 조정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이 최대 비율이 정해져 있고, 연구 책임자가 관련 참여정도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 책정되어 상황에 따라 인건비가 삭감된 연구원도 있음을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형예술관 내 엘리베이터 부재가 장애학생 이동이나 수업 특성상 짐이 많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열악한 환경임을 밝히며 건물 구조상 공사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조형예술관이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현재 건축법에 따른 내진 설계를 다시 해야하고, 관할 부서의 세부 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건축물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건축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추가로 엘리베이터 설치의 현재로써 불가능함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신산업융합대학, 인공지능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까지 총 4개의 단과대학이 재건축되는 생활환경관 한 건물을 같이 쓰기엔 공간이 협소하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고, 이에 기획처장이 면적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공간 구성 시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설계될 것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4학년도부터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신입생들이 공과대학에서 인공지능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강의실과 행정실이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하게 되는 문제가 대학평의원회에서 제기되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2024학년도에 편제 변동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는 관련 단과대학에서 요청 받은 사안은 없으나 과도기적 기간 내 공간 관련 요청이 있다면 고려하여 반영할 것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전자전기공학과와 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의 여론을 전하다.

- 기획처장이 해당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정원 증원은 교육부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교육부의 증원 절차 안내가 진행되지 않음에 구체적으로 실행된 부분은 없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생활환경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 생활환경관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과 재건축 이후 신 생활환경관을 사용할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11월에 설계 업체가 선정되었고 앞으로 설계 작업이 진행되는 1년 중 구체적인 공간 배정안이 구성될 때 단과대학별로 의견 수렴을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앞서 생활환경관 재건축으로 인하여 약학대학 학생들의 시설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교측 설명에 이어, 인상된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생들은 생활환경관 완공 시 졸업을 한 후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수혜의 부재를 지적하고 덧붙여,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종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다.

- 학생처장이 특수대학원 학생들에게도 특수대학원 특성화 장학금, 이화 복지 장학금 등의 교내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각 특수대학원에서 다양한 교외 장학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업료에 산입되는 입학금 실비용과 관련하여, 입학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폐지되었으나 그 실비용에 대해 등록금에 산입되는 형태로 변경되어 신입생들 입장에서 입학금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산입된 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입학금실비용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전액 지급되고,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될 것임을 설명하며, 실무부서에서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함에도 신입생들이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학생회에서도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생들은 입학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납부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입학금의 사용처와 그와 더불어 등록금이 4%나 인상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입학금 폐지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연관되어 학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된 실비용에 대해서는 등록금에 산입하되 국가차원에서 장학금 형태로 반환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입학금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 설명하고, 국가장학금 수혜 관련하여 대학원은 학부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을 유지함을 전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8% 인상에 대한 책정근거와 어떤 부분에 사용될지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본교를 포함하여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에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상황임에 유학생이 이화인으로 잘 적응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환경 등에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투자 비용을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자 8% 인상을 책정하였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로 함께 수업을 받는 내국인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거나 적응이 어려운 유학생의 사례를 설명하여 타 학교의 경우 5%씩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였지만 본교의 경우 동결을 유지해왔음에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2024학년도 부득이 8%를 인상안을 마련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된 금액으로 모인 자원 사용 계획에 의문을 표하며,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재편성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 위원장이 현재 기준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에 대비하여 해당 학생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부분에서의 본교의 지원이 미흡함을 설명하고,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상승하는 비용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분으로 충당하고자 함이며 특화된 맞춤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8% 인상은 현재 요구되는 최소 수준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확인을 위한 질의였음을 설명하고, 기획처장이 현재 국제처에서 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책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내국인 학생 수준의 언어능력 향상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강신청이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커리큘럼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등을 계획하여 1학기부터 시행하고자 준비 중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8%만큼의 인상이 필요한 부분인지 학교측 설명에 동의할 수 없음을 전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해온 것인지 왜 2024학년도에서야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해당 사

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등록금 규제 정책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계획 없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만 올리는 것이 아닌지 지금까지의 재원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8% 인상은 유학생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통하여 책정된 게 아닌 것으로 생각됨에 유감을 표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등록금 동결과 관련하여 설명된 국가 지원금과 관련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국가장학금과 같은 큰 규모의 지원금의 재원은 실질적으로 내국인 학생과 그 가족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며, 이에 등록금 규제 대상 여부의 문제보다는 지원금에 대한 재원 구조가 상이함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하고, 예산팀장이 역으로 해외 대학에 수학하는 학생들이 해당 국가의 내국인 학생들과 다른 등록금을 내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부연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해당 이유만으로 등록금 인상을 동의하기 어려움을 주장하고, 덧붙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 유행 시 관련 공지를 접하기 어려웠던 사례와 함께 학교생활의 고충을 전하며 8% 인상에 대해 유학생들의 복지 및 생활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다

- 예산팀장이 학부 총학생회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8%인상이 학생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학교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답하다.

- 위원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과목 개설과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본교 재정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보다는 기업이나 기부금 유치에 대해 노력이 먼저 진행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을 질의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안건 관련 발언 이전에 1차 등심위에서 논의된 외부 전문가 위촉 과정에 대해 학생위원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본 회의장의 모든 위원과도 대면하지 않았으며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써 본인의 판단 기준으로 의견을 논하고자 함을 먼저 설명하다. 졸업생으로써 대외협력처를 통해 정기적으로 혹은 이외 상황마다 기부금에 대한 독려 연락을 받고 있음에 학교에서도 기부금 모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예상하여 답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의 재정상황이 이정도 한계 상황임은 알기 어려웠으며 학교의 수입은 크게 국가지원금, 기부금, 그리고 등록금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기

업 재단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이 정도로 상승했음에도 등록금의 2배 가까운 지출을 기금을 인출하며 유지해온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다. 덧붙여, 훌륭한 교수님들이 본교에 오실 수 있는 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4%라는 수치가 기저효과로 인하여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타 학교와 더불어 기존에 1, 2%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었을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이어, 학교 재정 상황에 대해 졸업생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함과 현재 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모아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외부 전문가위원의 4%라는 수치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발언에 동의하며,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64.5%가 등록금 인상은 1%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5.5%가 인상 절대 반대를 응답했음을 언급하고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다.

- 외부 전문가위원이 학교 예산안을 검토했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무리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을 설명하다. 이에 인상률에 대해 학생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등록금 전체 재원의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률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내국인 재학생의 등록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할 수 있는지 반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유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사용처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으로 해당 등록금 인상률 하향 조정을 내국인 재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다.

- 외부 전문가위원이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질의가 반복되는 점에 대해 예산에 직접적, 간접적 비용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일부 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인상해도 그 혜택은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다. 타교에서의 용역 업무 수행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주어진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과목 수강 등 전공 외 다양한 학생활동을 경험함에 있어 재정적 지출이 일대일 대응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며 인상된 등록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냐는 질의는 적절하지 않음을 답변하다. 덧붙여, 통계학과 신설 시기 재학했던 학부 졸업생으로써 당시 강의/학생자치/행정 공간의 분리에 의한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앞서 논의된 인공지능 대학 신설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대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담되는 등록금 인상 상황에서 인상을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책정 근거를 질의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한 부분임을 설명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도 해당 부분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또 다른 질의를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동제 축제 등에서 학교로부터 이화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함을 느낀 대학원생이 많음을 전하고, 이화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함에도 등록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을 전달하다.

- 학생처장이 2023학년도 대동제에서 대학원생에게는 대동제 티셔츠를 배부하지 않은 건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의견이 아닐지 추측하며, 대동제는 학부 총학생회가 개최하여 운영되는 축제이고, 학부 학생회비와 프로모션을 주요 재원으로 개최됨에 따라 대동제 티셔츠가 학부생 대상으로 배부되었음을 설명하다. 대학원생 입장에서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하나 참여 자체가 배제되고 있지는 않음을 부연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학원관 리모델링의 필요성, 특수대학원의 학점 이수에 관한 어려움을 전하다. 특수대학원에서 입학 시 홍보했던 바와 달리 일반 대학원 수업을 이수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전공에 대한 선수과목 수강 여부 등에 따라 특수대학원생들의 수강이 적절하지 않아 전공 교수의 판단에 따라 수강을 제한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제한되어있지 않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고시반 정규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고시반 정규 예산 편성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 해당 요구안을 반영하여 각 고시반 별로 정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정규모 편성된 예산이 기존 특별 예산의 규모와 같은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기존에도 특별예산으로 표현되었지만 매년 고시반 예산은 상시적으로 지원해왔으며 2024학년도에도 학생요구안에 따라 비슷한 규모로 정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타 대학의 인상을 대비 2024학년도 본교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학교가 힘든 부분보다 학생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전하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1~2% 이내로 줄일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정되기 어려움에 유감을 표하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양해를 구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학부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이어, 위원장이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위원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위원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공대 편제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등록금 유지에 대한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위원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중 일반대학원 영상예술협동과정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위원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안건1] 학부 등록금 책정(안) : 승인

- 정규등록금, 학점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동결

(전년도와 동일하게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입학금실비용 189,000원 등록금에 산입)

[안건2]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 승인

- 정규등록금, 교과목등록금: 4% 인상
- 입학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동결

[안건3]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 승인

- 대상: 학부/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 정규등록금, 학점/교과목등록금: 8% 인상
- 입학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동결

[안건4]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 원안대로 승인

4-1. [학부] 공대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

: 기존 등록금 유지

4-2. [일반대학원] 영상예술협동과정 등록금 책정

: 일반대학원 예능계열 등록금 적용

■ 폐회

- 위원장이 의결사항을 확인하고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한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4년 1월 4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명희	이명희	위 원	백은미	백은미
	위 원	권하은	권하은	위 원	왕혜정	왕혜정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윤정원	윤정원
	위 원	박서림	박서림	위 원	이주연	이주연
	위 원	박예림	박예림	위 원	전현주	전현주
	위 원	박지혜	박지혜	위 원	정덕유	정덕유
	위 원	반지민	반지민			
작 성 자	학생 서기 송 수 진 송수진					